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1주일
제28권 39호(가해) 2008·8·24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애시 연락처) : (310)720-8240

[묵상]

아름다우시네요...
다정하시네요...
친절하시네요...
선하시네요...



웃고 있네요...

구상렬 하상 바오로 · 만화가

웃음은 일정 조건이 만족될 때 무려 15개의
안면근육이 수축되면서 나타나는 움직임이다.
기뻐서 웃는지, 웃어서 기뻐지는 모르지만

웃음 십계명을 들어 보았는가?

1. 크게 웃어라.
2. 억지로라도 웃어라
3.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4.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5. 마음까지 웃어라.
6. 즐거운 생각을 하며 웃어라.
7. 함께 웃어라.
8. 힘들 때 더 웃어라.
9. 한 번 웃고, 또 웃어라.
10. 꿈을 이뤘을 때를 상상하며 웃어라.

웃는 자는 아름답고, 다정해 보이며,
친절해 보이고, 선해 보이기 마련이다.
일소일소(一笑一少)하고,
일노일로(一怒一老)하기 때문 아니겠나?(人)

미사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들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프레아 (4째주)	종 강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매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최효선 안젤라, 박문규 프란체스코, 낙태된 영혼들
	(생)방기웅 마태오, 김풍길 바오로
주 일 낮 미사	(연)정진표, 정운봉 베드로, 정형두 바오로, 이현호 요한, 송영자 헬레나, 이은완 야고보, 김인영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이영자 마리아, 안지조와 차소저, 박석규 베르나르도, 강태람, 변세연 대견안드레아, 엄은섭 도로테오, 노식 베드로, 이문재, 박문규 프란체스코, 이세진 베드로
	(생)이금순 마리아, 이종민 요셉, 장정숙 크리스티나, 엄효정 모니카, 이진행 힐라리오, 최석원 클레멘스, 김종렬 베드로, 김현호, 김성현, 서승화 헬레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22,19-23

화답송 ◎주여, 너그러우심이 영원하시오니, 손수하신
당신 일을 버리지 마옵소서.<전례성가 87. A해 참조>
○내마음 다하여 야훼님 기리오리다. 내 입의
말씀을 들어주셨기에, 천사들 앞에서 당신께
노래하오리다. 성전앞에 엮드려 절하리이다.◎
○여지심과 진실하심 우러르며, 당신 이름을
찬양하오리니.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은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복돋아 주셨나이다.◎
○정녕코 야훼님은 높으시어도, 낮고 낮은 사람을
여겨보시며, 멀리서도 거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주여, 너그러우심이 영원하시오니, 손수하신
일을 버리지마옵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1,33-36

복음 ◎알렐루야.
환호성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 마태오(Matthew) 16,13-20

영성체송 주님,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땅이 배부르나이다.
주님께서는 땅에서 빵을 얻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을 내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27	188
봉헌	417	269,234
성체	356	304,295
파견	394	226

17. 입문성사(2) - 성체성사

▶ 성체성사의 제정

성체성사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고되어 온 것이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다. 하느님께서는 굶주리는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 주셨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적 생명을 유지하며 하느님 백성으로 살도록 내려 주신 양식이었지만, 이 만나로써 하느님께서는 장차 당신의 새로운 백성이 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실 성체성사를 예고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선포 활동을 하실 때, 빵을 많게 하셔서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요한 6,1-15; 마태 14,13-21 참조)을 행하시면서 성체성사의 의미를 미리 설명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물려드는 군중을 향하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51) 하셨으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6)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 죽음을 앞 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으로써(마태 26,26-30; 마르 14,22-26; 루카 22,14-20; 1코린 11,23-25) 구약의 예고를 완성하고 실현시키셨다.

▶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파스카 만찬을 하시면서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루카 22,19)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당신의 몸을 우리가 먹을 양식으로 내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몸소 파스카의 어린 양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희생 제물로 바치시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손에 포도주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루카 22,17-20)고 하시며 당신께서 흘리실 피를 우리가 마실 음료로 내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은 당신의 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신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어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온 인류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풀어 주셨고,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새 계약을 맺어 주시는 중개자가 되었다.

(◆계속 - CBCK 제공)

하늘나라의 열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신용하여 일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보고, 도둑놈에게 열쇠 맡긴 셈이라 한다.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열쇠를 주기 마련이다. 사도 베드로가 받은 열쇠는 그에 대한 주님의 믿음과 사랑의 선물이다. 언제부터인가 열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문단속이나 귀중품을 잘 보관하기 위해 모양도 갖가지, 크고 작고, 글자 맞추기도 있다. 하지만 집대문, 방, 사무실, 금고, 자동차 열쇠보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꼭 갖고 있어야겠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5).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너는 베드로이다”(마태 16,17-18).

‘살과 피’는 자연인간이라는 뜻으로 자연 인간은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를 고백할 수 없고 오직 하느님의 계시가 내려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몬에게 주신 별명은 아람어로 케파(돌, 바위), 그리스어로 페트로스(돌)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고백한 시몬 베드로를 반석으로 하여,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매고 푸는 권능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물려받은 베드로 사도가 하늘나라를 사람들에게 열어 주고 그 곳에 들어가게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명하는 것을 다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마태 28,20 참조). 산상설교의 교훈들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5,20).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들(7,24)은 ‘가장 작은

이들’ 안에 계신 주님이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분을 돌보아 드린다(25,31-40). 그래서 이들은 하느님 나라로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7,20).

우스갯소리 중에 천국문을 지키는 베드로가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한 한국 사람들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느님은 속마음을 보신다(1사무 16,7 참조).

복녀 형제들이 굶주리고 죽어간다. 우리는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도와 주어야 한다.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해서뿐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려지는 그 문을 사랑의 열쇠로 열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야 한다. 길, 진리, 생명이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어둠은 실재가 아니다. 단지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우리가 방 안의 커튼을 내린다면 아무리 해가 밝게 비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방은 어둠 속에 잠길 것이다. 이런 어둠을 쫓기 위해서는 햇빛을 더 밝게 하는데 힘쓸 것이 아니라 -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 빛이 방 안에 잘 비쬠들게 해야 한다. 커튼을 올리고 창문을 열면 밝아진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베드로의 대답처럼 고백하자.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박문식 베네딕토 신부<콘벤뚜알프란치스코회 관구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신덕례 데레사	최진수 에우세미오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이호미 엘리사벳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배재일 미카엘	이영석 크리스토폴	제1독서자	이태호 요한	이민상 요한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화영 잔다르크	황지영 안젤라	박희자 마리아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김금자 데레사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 4 -

이 주간의 축일 (8월24일~8월30일)

㉠ 축하합니다. ㉠

- 24일 : 바르톨로메오 사도, 아우레아 순교자, 에밀리아수절, 로마노주교
- 25일 : 요셉 갈라상시오 사제, 루도비코 9세 왕 증거자, 체네시오 증거자, 파트리치아 동정녀, 마리아 미카엘라 동정녀, 엠바 동정녀
- 26일 : 엘리야 주교, 이레네오 순교자, 제피리노 교황, 엘리사벳 동정녀
- 27일 : 루도 순교자, 후고 증거자, 만네아 순교자, 모니카 수절
- 28일 :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 모세 증거자, 헤르메스 순교자, 요아키나 동정녀, 펠라지오 순교자
- 29일 : 메데리고 원장, 히파시오 순교자, 사비나 순교자, 바실라 동정녀
- 30일 : 펠릭스 사제 순교자, 아다욱토 순교자, 팔마치오 증거자, 베드로 증거자

남가주 소식

◆ 이나시오 영신수련 입문과정

- 일시 : 8월25일(월)~29일(금)
- 주제 :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 인원 및 참가비 : 25명 선착순, \$380(숙식포함)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피정센터 ☎(323)731-44

◆ LA 대교구 Labor Day Mass(노동절 미사)

- 때, 곳 : 9월1일(월) 오전 10시, LA 대교구 주교좌 성당
- 주례 : 로저 마호니 추기경
- 강론 주제 : 노동자권익, 노동환경향상, 인도적 이민개혁 등 다민족 사회가 추구해야할 이슈를 강조

◆ 주님 탄생예고 대축일 봉헌 및 봉헌갱신식

- 일시, 장소 : 9월8일(월) 오후 7시, LA 성바실 성당
- 주례 : 김재섭 요한마리아비안네 신부
- 주최 : 파티마 세계사도직(푸른군대) 서부평의회 ☎(323)818-1285

◆ 제 3회 한국 순교자 현양대회

- 때, 곳 : 9월28일(주일) 오후 3시30분, LA 대교구 주교좌 대성당(555 W. Temple St. LA)
- 주례 : Gabino Zavala 샌게이브리얼 지역 주교, 남가주 한인사제단
- 주관 : 성마리아 성당

◆ 프랑스 루르드 성모님 발현 150돌 기념 성지순례

- 여행기간 : 10월3일(금)~10일(금) 7박8일
- 경비 : \$2,450(뉴욕 국제공항 출/도착 기준)
-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특별기회가 주어질 이번 순례는 지도신부님들의 알찬 가이드가 준비되어 있음.
- 신청마감 : 9월3일까지, 미주평화신문 ☎(718)762-6500

이번 주 단체 모임

다음 주 단체 모임

8월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남명자 데레사 328-0847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박선화 안나 325-3888 8/16(화) 오후 7시
	3	한길선레 스프라스타카 782-1025	한길선레 스프라스타카 782-1025 8/22(금) 오후 8시, 성당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김주량 요한 782-8549 8/2(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이상규 다니엘 542-8365 8/12(화) 오후 7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엄영숙 마리아 373-5662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박희자 마리아 791-3703 8/12(화) 10:30am 히코리팍
	3	강은진 켄마 214-2290	강은진 켄마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최미열 클라라 324-0735 8/8(금) 오후 7시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올리아 365-472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8/17(주일) 오전 11시, 샌피드로팍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2반 합동 반모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8/15일(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1807 8/15(금) 오후 7시30분, 성당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8/15일(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8/15일(금) 오후 7시30분, 성당

◎ 성체 안에 그려진 것은? ◎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지구 전체를 한 마을처럼 여겨 이르는 말이다. 인류의 엄청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전 세계를 하나의 마을처럼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 통신의 발달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위성을 통한 화상통화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전 인류는 아주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그런데 정말 이웃이 된 것이 맞는 것일까?

한편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시작부터 전 인류가 ‘지구촌’이었음을 보여 준다. 현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출현한 것은 20만 년 전 중앙아프리카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10만 년 동안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머물며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 그러다가 10만 년 전부터 전 세계를 향해 이동을 시작한다. 처음으로 정착하게 되는 곳은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쪽이었고, 7만 년 전에는 중국에 다다른다. 5만 년 전에는 유럽으로 그 이후 북미로 남미로 퍼져 나갔다. 결국 전 인류는 한 조상으로부터 유래했고, 지구촌은 한 가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피부색, 인종, 종교의 차이는 지구촌 식구들을 갈라놓고 차별화할 아무런 근거도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는 오히려 성경의 증언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인류가 하느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느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말이다. 더욱이 보편교회임을 자랑하는 우리 가톨릭교회의 정신을 더 잘 드러내 준다. 지난 3주에 걸쳐서 끊임없이 언급했던 이웃을 향한 마음의 외연을 이제는 더 넓혀야 한다는 의미이다. 원래부터 한 가족이었고, 과학의 발달로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우리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난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생명이 위협에 처해 있고, 함께 잘 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지구촌 형제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인류는 하느님 안에 한 가족이니까.

지난 6월,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된 제49차 세계성체대회에 한국 참가단으로 참가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 곳에서 나는 한 성당 제대 옆에 걸려 있는 그림을 보고 순간 놀람과 경이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 그림은 새 하얀 성체만을 덩그러니 그려 놓은 그림이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성체 안에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 가는 이때에 이 그림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을 확연히 보여 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을까?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성체’라는 퀘벡 세계성체대회의 주제가 계속 나의 뇌리를 스친다.

◆윤경중 요한보스코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운동부장

■ 사도 바오로와 함께 드리는 기도 ■

- 사도 바오로를 통해 구원의 빛을 비추신 하느님.
- 저희가 거룩한 사도의 모범을 따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도록 이끌어주소서.
-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로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 사도 바오로와 같은 충실한 제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어 더 많은 이들이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해주소서.
- 저희도 바오로 사도의 열성과 믿음을 본받아 이 땅에 힘차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 성 바오로 사도와 모든 성인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